

국민의당 통합 찬·반 갈등...제 갈 길 가나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

통합과 "지역주의 극복해야" 반대파 "안철수 대표 나가라"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파로 갈려 '제갈 길 가기'를 고수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오는 27일부터 정책연대협약체제를 가동한다. 정기국회에서 정책 공조를 위한 양당의 협의기구지만, 양당 통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안철수 대표 측의 의도가 있어 주목된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평화개혁연대를 이끈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바른정당과 통합 중단을 요구하고 지도부 교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찬성파**=정책연대협약체제는 예산안과 중점 법안 등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서 국회 내 영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양당의 통합 분위기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안 대표 측은 26일에도 통합 명분 쌓기 위한 여론작업을 계속했다. 장진영 최고위원은 "이제 다당제는 시작됐지만 지역주의는 여전히 있다"며 "양당제는 지역주의와 결탁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당제와 지역주의는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호남 진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철근 대변인도 "국민의당 확장노선인 연대 통합의 노선이 국민의당 승리의 노선"이라며 "다수가 찬성하면 진행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안 대표가 이처럼 바른정당과 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6·13 지방선거의 성패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다고 보기 때문'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 상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가 26일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삼크뱅크 '미래'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미래 대표 오승용 당 제2차당위원회 공동위원장, 최상용 상임고문, 채이배 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림막을 걷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패배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안 대표는 정치판을 흔드는 변화를 통해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호남계 중진들은 이날도 안 대표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을 이어갔다. 유성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대표를 겨냥, "그 길을 걸단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면서 "기어코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과 통합 협상

당과 통합 중단 선언"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개혁연대를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 과제 실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화개혁연대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은 일단 의원 40명 중 과반 확보는 충분하다고 보지만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 의원 설득 작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생각이 있다.

호남계 중진들은 이날도 안 대표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을 이어갔다. 유성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안 대표를 겨냥, "그 길을 걸단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면서 "기어코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국당과 통합 협상

을 하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라며 "신 YS 3당 합당의 길에 휩쓸려 달라는 것인데, (안 대표)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안 대표는 부인하지만, 상대(바른정당)는 단계적 3당 통합론을 주장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당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DJ도 정채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뿌리가 같은 원내 8석의 오마민주당과 통합했다"면서 "정채성이 완전히 다른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은 통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처리될까

12월2일 법정시한...공무원 충원 등 여야쟁점 산적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2일) 이내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이 많고, 재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립도 여전히 예산안이 내달 2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와 함께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무원 충원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입장 대립으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심사 결과, 보류된 사업은 172건 정도로 예산액으로 치면 25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처럼 보류 항목이 많아 예결위 조정소위는 전날도 감액 보류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예결위는 이 자리에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끝내면 바로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야 대립 속에 보류되는 항목이 많아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창구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통해 쟁점 예산·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류된 항목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산은 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공무원 충원, 이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3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초고속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초고속투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한국당 등 야권 반발이 강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법인세·소득세 인상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예산안 처리 기조에 큰 변화를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사수한다는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당을 비야 대립 속에 보류되는 항목이 많아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창구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국당,

정무수석 마땅한 인물 누구 없소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청와대의 여야 소통창구인 정무수석 인선이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 및 주요 개혁·민생법안 통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정병현 전 수석의 사퇴로 청와대 정무수석 공백은 열흘을 넘어서고 있다. 포항 지진과 수능, 세월호 유골 은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민 방문, 한중 정상회담 등 각종 현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알고 '선임 수석으로서의 무게감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지난주 강기정 전 의원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잇따라 정무수석직을 고사한 이후,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정무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비서관급 인사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 '코드'가 잘 맞진 않지만 초·재선 경력에 그쳐 정치적 중립감이 다소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 외부에서 거

론되는 3선 내외의 전직 의원들은 중립 감도 있고 야당과의 소통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느냐가 미지수다.

청와대는 여전히 차기 정무수석의 제1의 조건으로 '대통령의 진심을 국회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우고 있어 후임 인선이 그리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5일 롯데 흡수권 다툼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병현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법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군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된 전 국방부 정책령과 '코드'가 잘 맞진 하지만 초·재선 경력에 그쳐 정치적 중립감이 다소 떨어진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 외부에서 거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국민의당 입법·예산 협조 잃을까 고민 개헌특위, 내일 지방분권 주제 집중 토론

국민의당 내용이 심화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과반에 턱없이 못 미치는 121석의 소수 여당으로선 국민의당이 제 1의 협치 파트너인 셈인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른바 중도통합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자꾸만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렇다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예산·입법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민주당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소수

여당으로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국민의당(40명)과 공조가 절대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 대표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안 대표가 예산안으로서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인위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김형호기자 khh@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오는 28일과 30일에도 두 차례에 걸친 집중토론을 이어가는 등 이번 주에도 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에 관한 개헌 핵심외제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집중토론을 진행한다. 오는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한다. 그동안 집중토론에서는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관련 내용이 다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또 검사의 영장 청구 주제

와 '동일가지도동일임금' 관련 규정을 새 헌법에 명시할지를 두고도 공방을 했다. 이번 주에 있을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관련 개헌 집중토론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부형태 ▲정당·선거 ▲지방분권 등 3개 분과와 사회 의견을 거쳐 내달 1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최종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새 헌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놓고 이견이 분분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지원기자 jkpark@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특별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1. 21(화) ~ 11. 29(수)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45	2017. 12. 1(금) 오후 2:30

■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7. 12. 1(금) ~ 12. 12(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0	2017. 12. 15(금) 오후 2:30
		신학과(Ph.D.)	6	2017. 12. 15(금) 오전 9:40
		목회학과(D.Min.)	2	2017. 12. 15(금)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일반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5	
석사	신학과(Th.M.)	25	2017. 12. 16(토) 오후 2:4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A.)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인원이 있는 대학·인원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2길 36